



“神”의 소재” 스티로폼



최창영
MBC 2580 취재부장

내 아버지는 한국내 스티로폼 최초개발자 겸 생산자였다. 60년대 중반 코르크(Cork 건축 자재용회사에 다니던 아버지는 일본에 가서 스티로폼을 보고 나서 당시 표현으로는 “정말 기찬 것”이 있다고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67년에 인천에 삼정(三井)화학이란 일본적 분위기가 나는 이름 스티로폼 공장을 차렸다. 아버지가 일본 시즈오카 현이나 오사카로 출장을 떠날 때면 시골에 사는 친척들까지 김포 비행장으로 모여 배웅했던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정환경 조사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스티로폼 공장운영’ 이라고 쓰면 담임선생님이 그제 뭐하는 거냐고 물어오셨다. 그러면 “왜 텔레비전에서 눈 을 때 뿌리는 것 있잖아요?” 혹은 “아이스박스 만드는데 쓰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답했던 기억이 있다.

또 하나의 기억.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본친구들에게 아버지 직업에 대해 얘기했던 적이 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스티로폼을 이해하지 못했다. 10여분동안 설명한 뒤에야 한 친구가 “아, 하보스치로” 하니까 다른 일본친구들이 일제히 맞장구를 쳤다. 일본에서는 하보(發泡)스치로스티로폼의 축약이라고 해야알아듣는 구나하는 것을 처음알았다. “그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했나?” 라고 물어 오길래 속으로 자랑스러워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나에겐 남달랐던 스티로폼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후처리 등을 문제 삼아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펴므로써 사용에 제약을 받고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렇지만 미국에서의 경험을 되

돌아보면 그곳은 아직도 스티로폼이란 소재를 그렇게 터부시하지 않는 것 같다. 전자제품을 사도 그안에는 스티로폼 완충재가 잔뜩 들어가 있고 편의점에 들어가면 으레 커피는 스티로폼컵에 따라마신다. 각종장식, 기구에도 스티로폼이 많이 쓰이는 것을 봤다. 텍사우트에서 야구선수들이 짐을 랩는 일종의 타구(唾具)도 스티로폼 제품이었다. 구글(Google), 위키피디아(Wikipedia)와 뉴욕타임즈에서 ‘Styrofoam’을 쳐보면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다만 울들어캘리포니아와 오레곤주에서 특정 식품용기로 쓰지 못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미국 내 20개 도시가 따라 가고 있다는 뉴스가 있다. 미국이 이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규제를 통해 사용에 많은 제약을 가한 것에 비하면 미국의 사정은 많이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 미국의 경우 스티로폼 생산업체인 다우케미칼(Dow Chemical)의 로비실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는 한쪽으로 쏠리기 잘하는 우리가 일제히 몰려 앞서 간 것인지, 혹은 한국의 환경단체의 힘이 훨씬 센 것인지 잘 모르겠다.

다만 한때 “신의 소재”라고 칭송될 만큼 우리 생활에 절대적이었던 물건을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 한 두 가지 때문에 사용을 제약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장단점을 잘 따져서 장점은 취하면서 관리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싶다. “신의 불방울”이라고 칭송받는 포도주에 나쁜 성분이 하나 있다고 포도주를 우리식탁에서 일제히 불러버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